

# “교정은 새 삶의 출발선...재사회화·상생 앞장”

이석호 목포교도소교정협의회장 취임

혁신·복지 강화·위원 역량 제고

지역사회와 소통·공헌 등 확대

“상호 연대 교정 공동체 모델 제시”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수석부회장, 홍용승 광주교정청 교정협의회장, 지역 기관·단체장 및 교정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석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교정은 처벌의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삶의 출발선”이라며 “교정협의회는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면서 이 회장은 ▲교정협의회 사명과 비전 정립 ▲투명하고 신뢰받는 협의회 운영 ▲실질적 교정 복지와 혁신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

회와의 소통 및 공헌 강화 ▲교정위원 역량 개발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수용자의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역시 재사회화에 중요한 요소”라며 “편견 해소와 함께 이들을 위한 복지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앞으로 모든 사업과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위원들의 신뢰와 자긍심을 높여겠다”며 “분과별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용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교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교정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정위원의 사회적 위상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교정협의회와의 외연 확장도 시사했다.

그는 “인근 장흥교도소를 비롯한 광주지방 교정청 산하 교정위원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상호 연대하는 교정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또 “위원 한 명, 한 명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곧 조직의 경쟁력”이라며 “정기 교육과 멘토링, 교정현장 연수 등을 통해 위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목포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사무국장과 운영위원 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광주교정연합회 부회장, 국제와이즈맨 서해중지방 지방장, 목포와이즈맨 장학회 이사, 남송유통 대표로 활동 중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 薑시장, 광주서 만든 애니 ‘다이노맨’ 관람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7시 메가박스 광주상무점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다이노맨: 공룡산의 비밀’ VIP 시사회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번 시사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공모전’에서 스케일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튜디오버튼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다이노맨: 공룡산의 비밀’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간여행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으로 TV 시리즈 ‘다이노맨’의 세계관을 확장한 약 60분 분량의 가족형 콘텐츠다.

무등산에서 태어난 꼬마공룡 하어로 ‘다이노맨 구조대’가 우주약당에 맞서 멸종위기동물을 지키기 위해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작품은 오는 25일부터 전국 메가박스에서 정식 개봉할 예정이다.

제작사인 ㈜스튜디오버튼은 지난 2015년 설립된 광주 소재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으로 ‘다이노맨’, ‘또봇V’ 시리즈 등 다수의 히트작을 제작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문화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광주 서부경찰, 전 직원 폭염 대비 응급처치 교육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전날부터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AED 작동법 ▲기도 폐쇄 등 응급상황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종열 서장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 무안경찰, 교통 기초질서 확립 현장 계도활동

무안경찰서는 10일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단속 중심의 접근이 아닌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을 활용,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자체 제작한 치안소식지와 물티슈 등을 나눠주며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일상에서 간과되기 쉬운 교통법규 위반이 교통안전에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덕목이다. 작은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소한 위반이라도 교통안전에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 전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네트워크 협력 강화

전남도는 지난 9일 해남 126 호텔에서 전남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다문화 업무 담당자, 가족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를 열어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실화를 위해 매년 2회 개최된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이중언어강사 역량 강화와 같은 유사사업을 사전 공유하고 지역 기반 인력풀 상호 구축, 결혼이민자 대상 강사 양성,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올해 전남도는 이중언어강사, 다문화이해강

사 등으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교육청은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전문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특화사업과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다문화가족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자 전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 박대운 광주 치우치과 대표, 담양군 고향사랑 기부

담양군은 “광주 두암동 소재 치우치과의 박대운(사진 오른쪽) 대표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담양군청을 찾아 기부 의사를 밝히며 “평소 담양에서 병원을 찾아주는 이들이 많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이웃한 지자체 주민으로서 담양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의미 있는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마음이 담양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에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은 ▲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및 퇴원 환자 통합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향촌공동급식센터 운영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김민호 광주MBC 본부장 ‘연예제작자協 특별상’

김민호 광주문화방송(광주MBC) 콘텐츠본부장이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

10일 광주MBC 등에 따르면 이 상은 한국 대중문화 및 연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으로, 김 본부장의 30여년에 걸친 방송 제작 활동과 창의적 기획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김 본부장은 지난 17년 동안 고품격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인 ‘문화콘서트 난장’을 기획·제작해 왔으며 김정차마, 몽니, 국가스텐, 안녕바다, 멜로망스 등 수많은 실력과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소개해 대한민국의 음악 산업과 방송 콘텐츠의 품격을 동시에 높였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7년 8월에는 518분(8시간38분) 동안 민주·인권·자유를 주제로 광주의 상징성과 문화적 의미를 음악으로 풀어낸 ‘난장 518미닛 페스티벌’을 개최했으며 로맨틱핀치·슈퍼



키드 등 총 10개팀의 뮤지션이 ‘오월의 숨소리’라는 주제를 발표해 5·18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문화콘서트 난장’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음악의 가치와 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려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아시아의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우미그룹 창업주 이광래 회장 별세



우미그룹 창업주 이광래(사진) 회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강진군에서 태어난 고(故) 이회장은 1966년 사병으로 군에 입대한 후 1973년 소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18년간 경리장교로 복무했다.

1982년 우미그룹의 전신(前身)인 ‘삼진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건설업계에 뛰어들어 1992년 3월 우미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건설 사업을 펼쳤다.

2006년에는 사회공헌을 위해 금파재단(현 우미희망재단)을 설립했고,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석준(우미글로벌 부회장)·석일·혜영(우미건설 건축디자인실 실장)의 세 자녀가 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 실이며 발인은 오는 12일 오전 5시다. 장지는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선영에 마련됐다. /임채만 기자



## 해경교육원, 말레이시아 기관과 훈련

해양경찰교육원은 “최근 실습함이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에 입항해 말레이시아 해양치안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습함에는 해양경찰교육원 승조원과 신입 경찰 총 12명이 참가한 대양항해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7일 여수항을 출항해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에 입항, 정박행사를 가진 후 오는 21일 여수로 복귀하는 총 25일간의 여정이다.

실습함 승조원들은 이번 기간에 말레이시아 해양경비대(MMEA) 사령부 방문, 항공대 기관 견학, 양국 합동훈련, 환경 공개행사, 업무정보 공유, 특별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해양치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 중 정박 3일차인 지난 9일 실시된 합동훈련은 마약 운반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과 용의자 체포 및 제압, 용의자의 해상 추락에 따른 인명구조, 고의 방화에 대응하는 소화전함 훈련 등 복합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한상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이번 원양항해 중 기관 방문과 합동훈련을 통해 양국의 해양역량과 발전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측 참가자도 “대한민국 해양경찰과의 첫 합동훈련이 매우 뜻깊었으며 이러한 교류가 정례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장흥경찰, 교통 치안파트너 간담회

장흥경찰서는 “최근 ‘모범안전사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 치안파트너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는 출·퇴근길 교통 근무·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해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져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원활한 교통 관리와 교통 안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더불어 국도 2호선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 및 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자체와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모범안전사회와 녹색어머니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실시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한 장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흥=노형록 기자